



삽살개는 훌륭하다 역사를 지키는 개 독도지킴이 삽살개

A HISTORICAL DOG

DOKDO PROTECTOR

글 임나경 사진 한국삽살개재단 제공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한반도의 동쪽 섬, 독도에는 털북숭이 경비대가 있다. 그들은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의 토종견인 삽살개이다. 일제에 의해 대량 도살당했던 이들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되어 지금은 10대째 ‘독도지킴이’로서 활동하며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 미처 몰랐던 삽살개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자.

귀신 쫓는 개, 삽사리: 용맹한 군견이 되다

삽살개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눈을 가리는 긴 털이 휘날리는 신선 같은 외형이지만, ‘삽살개 3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근성과 순발력이 뛰어나고 용맹한 견종이다. 삽살개는 ‘귀신을 쫓다’는 이름의 뜻답게 김유신 장군의 충성스러운 군견이기도 했다. 또한 삽살개는 새와 동물을 소재로 그린 그림인 영모화나 액운을 쫓기 위해 동물을 그려 문에 붙이는 그림인 문배도의 주요 소재가 되었고, 이외에도 소설과 민요 등에도 등장하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해 온 토종견이다. 주로 왕실과 귀족사회에서 길러지던 삽살개는 통일신라가 멸망하면서 민가로 전해져 대중적인 개가 되었다. 이후로도 동네마다 한 마리씩 보이는 친근한 개이던 삽살개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일제 토종개 말살정책: 멸종위기에 처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의 뿌리와 흔적을 지우는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종개들을 없애기 시작한 것이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일본의 개와 생김새가 닮았다는 이유로 조선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으나 삽살개는 그와는 다른 고유의 외형으로 인해 제거 대상이 되었다.



1931년 조선총독부는 일본군을 위한 방한복, 방한모를 만들기 위해 조선원피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일제는 삽살개의 긴 털과 방습과 방한에 탁월한 가죽을 이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150만 마리의 삽살개를 대량 학살해 모피를 수탈했다. 이로 인해 삽살개는 2천 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멸종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삽살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경주와 강원 남부 산간벽지에서 비교적 원형이 유지된 삽살개 30마리를 찾아내어 연구를 이어갔다.

삽살개의 독도 수호: 역사왜곡을 바로잡다

1985년, 현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인 하지홍 교수 연구팀은 DNA지문기법을 통한 삽살개 원형 복원에 성공했고 오랜 노력 끝에 1992년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며 삽살개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5천 마리 이상의 삽살개가 살고 있으며 한국삽살개재단에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렵사리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온 삽살개는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아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지나친 독도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자 우리나라는 ‘액운을 쫓기 위해’ 삽살개를 독

도로 보낸다. 1998년부터 동해에서 일본 경비정의 출몰을 알리는 경비견으로 근무를 섰던 1대 독도지킴이 ‘동돌이’와 ‘서순이’를 시작으로 10대 경비견인 ‘우리’와 ‘나라’까지 벌써 25년째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 삽살개의 독도지킴이 활동은 일본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했던 우리의 토종개가 지금은 그들로부터 우리나라와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민족적인 의미를 지닌다.

독도경비대원의 친구: 나라와 마음을 지키다

독도지킴이 삽살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독도경비대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다. 울릉도에서도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박마저 어려운 외로운 섬인 독도에서 생활하는 일은 녹록지 않다. 늘 긴장감을 갖고 근무를 서야 하는 경비대 활동이 힘에 부칠 때마다 곁을 지켜주는 커다랗고 복슬복슬한 귀여운 삽살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여기에 보호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삽살개의 특성이 더해져 마음도 든든하다. 이뿐만 아니라 삽살개들은 국가유산지킴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동물매개치료도우미로도 활동하며 대외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삽살개의 건강을 위해 2년마다 교대하며 독도경비대와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고 섬 곳곳을 누비며 ‘독도는 우리 땅’임을 명백히 알리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